

익산, 지역경제 회복 주력

포스트코로나 대책본부 실무추진단 회의... 총 32개 사업 736억원 투입

익산시가 포스트코로나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조기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주력한다.

익산시는 4일 정현을 시장과 유재구 시의장, 김원오 상공회의소회장, 김양배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공동위원장이 참석하는 포스트코로나 대책본부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32개 정책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발굴된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대책본부에 소속된 민·관 기관과 단체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맞춤형 정책이다.

이날 결정된 사업은 4대 중점과제를 토대로 마련된 7대 핵심사업, 25개 일반사업 등 총 32개 사업이며 예산은

736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18개 사업, 중소기업은 육성자금 용자 지원 확대 등 6개 사업이 포함됐다.

고용지원 분야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등 6개 사업, 복지 분야는 익산 나눔공간 운영 등 2개 사업이 확정됐다. 특히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에 반영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다. 시가 현실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혔다.

시는 기존 연매출 1억2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5일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포스트코로나 대책본부'를 조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총력을 다해 왔다.

본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3차례 실무추진단 실무회의를 통해 4대 중점과제를 정하고 7대 핵심사업, 25개 일반사업 등 총 32개의 경제회복 사업을 발굴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발굴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대 이효준 교수, 친환경 펩타이드 합성법 개발

금속 사용 배제한 점 주목

군산대학교 화학과 이효준 교수가 일본 교토대학교의 마루오카(Keiji Maruoka) 교수 연구진과 함께 초원자가 아이오딘(III)을 사용한 새로운 아미드 결합의 합성방법론을 개발했다.

아미드 결합은 유기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고도 필수적인 결합으로, 이를 포함하는 의약품과 천연물, 농약, 합성 소재는 무수하게 많다.

신중 인플루엔자의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를 구해준 타미플루에도 아미드 결합이 존재하고, 대표적인 아미드계 합성 고분자 소재인 나일론은 우



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다. 인체를 구성하는 DNA와 단백질에도 아미드 결합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코로나바이러스(CORONA 19)의 mRNA백신에서도 아미드 결합(펩타이드 결합)의 역할은 매우 크다. 따라서, 아미드 유도체를 효과적으로 합성하여 그 물성 및 생리활성을 파악하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아미드 결합은 카르복시기의 탈수축합반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카르복시기 화합물의 높은 극성으로 인한 합성 및 조사의 어려움, 반응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전세계의 많은 연구팀들이 카르복시기를 대체할 작용기와 활성화 방법론의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일환으로 에스터기를 사용한 아미드의 합성법이 각광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낮은 에스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온 또는 금속 촉매의 사용과 같은 혹독한 반응 조건이 요구된다.

군산대 이효준 교수는 초원자가 아이오딘(III) 화합물을 사용한 특정 에스터기의 선택적인 활성화를 통해 아미드 결합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해당 방법론은 낮은 온도(0 ℃)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화합물의 분해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합성이 어려웠던 큰 입체장애의 아미드 결합 또한 쉽게 도입할 수 있다. 특히, 금속의 사용을 배제한 친환경적인 아미드 합성법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해당 방법론은 다양한 아미드 유도체뿐만 아니라 펩타이드 화합물의 합성에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 상지원·중흥마을, 현대식 농촌마을로 거듭

총 35억원 들여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주택정비

익산시는 함열읍 상지원마을과 오산면 중흥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들 마을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5억원을 활용, 현대식 농촌마을로 거듭난

다. 함열읍 상지원마을, 오산면 중흥마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방치된 폐축사와 30년 이상 노후 주택 또는 슬레이트 지붕 설치 비율 40%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향후 4년간 함

열읍 상지원마을은 20억원(국비 15억원), 오산면 중흥마을은 15억원(국비 10억원) 등 총 35억원(국비 25억원)을 투입해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주택정비사업을 펼치게 된다.

또 폐축사 철거, 협소 도로 정비, 재난 안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사업, 마을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전개한다. /익산=정영원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개인 SNS에 미안마 민주주의의 회복 릴레이 응원챌린지 동참을 알리며 대내외적으로 미안마 '불의혁명'의 지지를 4일 표했다.

강임준 시장, 미안마 민주주의의 회복 챌린지 참여

강임준 군산시장이 개인 SNS에 미안마 민주주의의 회복 릴레이 응원챌린지 동참을 알리며 대내외적으로 미안마 '불의혁명'의 지지를 4일 표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의 지명을 받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된 군산시장은 평소 참여했던 30여 년 전 한국 민주화 현장이 떠올라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국제사회와 함께 미안마 군

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현지 교민의 안전 확보와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국제적 의지 및 실행 촉구 등을 담았다.

강임준 시장은 "미안마 군부의 쿠데타와 미안마 국민에 대한 폭압을 즉각 멈추고, 현지에 있는 우리교민 3,500여 명의 안전보호를 촉구"하며, "미안마 국민이 염원하는 '불의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삼학동,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38억,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본격 추진

군산시는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금광공원 인근으로 지난 2015년 완료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노후주택과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안전·위생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여량 강화 등을 통해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구역에 올해부터 4년간 국비 2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주민 주도형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협력하여 동네우물터, 태성이발관 등 주민소통공간·공동체 복원을 통한 마을정체성 보존과 자긍심을 찾아 가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앞서 지난 2016년 산북동 개원·미창마을, 2020년 구암동 장죽·외산마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새마을사업이며, 이번 공모사업에는 도시지역 전국 16개소(전북 3개소)가 선정됐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원광대 이동녕 교수 회계정보학회 차기 회장 선임

원광대학교는 이동녕(경영학부) 교수가 최근 제31대 한국회계정보학회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이동녕 교수는 차기 회장 선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회계정보학회를 이끌게 된다.

이 교수는 원광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미국 노바사우스이스턴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경영교육학회, 상업교육학회 부회장과 임원을 역임했다.

한국회계정보학회는 회계학 연구와 교육 및 산학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 상호 간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1985년 창립됐다.

현재는 회계학 최고의 학술단체로 성장해 학술동재지 '회계정보연구'와 '재무와 회계정보지널'을 발간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비대면 신년대회 추진

군산시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신년대회를 5일부터 수송동, 나은3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대면방식으로 4개 동(조촌동, 경암동, 개정동, 구암동) 주민과의 신년대회를 추진했지만 지난달 23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향후 대면방식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비대면 방식으로 신년대회를 추진한다.

이번 신년대회는 5일부터 11일까지 6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참석자 모두 각자의 사무실이나 집에서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연락처 형식의 영상회의(ZOOM) 접속을 통해 회당 100명의 참석자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복국'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